

##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위반·봉합·균열의 문제\*

조현우\*\*

— <차 례> —

1. 문제제기
2.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위반’과 ‘봉합’
  - 1) 천정(天定)과 부모의 부재를 통한 딜레마의 해결
  - 2) 완벽한 남장과 기담(奇談)으로의 수용
3. 젠더 규범의 ‘균열’과 ‘전복’의 가능성
  - 1) ‘꾸밈’이 초래하는 혼란과 균열
  - 2) 법의 충돌과 전복의 가능성
4.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여성영웅소설에 대해 지속되어왔던 ‘저항 대 순응’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 보고자 시도되었다. 여성영웅소설에는 여성의식의 진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부장제와 그것을 지탱하는 젠더 규범에 저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동시에 그에 순종하거나 심지어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볼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한다. 본고에서는 젠더 이분법에 어긋나는 젠더 변환과 성공적인 젠더 수행을 ‘위반’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했다. 또 그와 같은 ‘위반’을 젠더 이분법 내로 다시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봉합’이라는 개념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위반에 대한 봉합이 늘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그에 따라 여성영웅소설에 드리워진 젠더 이분법에 대한 불안을 ‘균열’이라는 개념을 통해 제시했다.

여성영웅은 완벽한 ‘꾸밈’으로서의 남장과 여장을 통해 성공적인 젠더 변환을 수행하는 인물이다. 물론 이와 같은 과정은 서사에서 여성영웅이 본래의 섹스를 되찾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여성영웅은 여성의 일에 큰 관심이 없는 ‘여성’이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4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었고, 남장을 통해 이상적 남성인 ‘영웅’이 되었다가, 다시 여장을 통해 ‘여성인 채로 영웅’이 된다. 서사의 표면에서 성공적인 남장이 곧바로 성공적인 여장으로 ‘융합’된다고 해도, 꾸밈을 통한 신속하고도 완전한 젠더 변환은 젠더의 실체를 의심하게 만든다. 또한 한번도 젠더 규범 내에 안정적으로 포함되지 못했던 여성영웅이 지속적으로 법을 인용하고 준수하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법이 탈자연화된다. 일관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법은 이제 그 내부로부터의 모순을 드러내게 된다. 그리고 이는 다시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젠더 이분법의 ‘균열’을 감지하도록 해 준다. 이러한 균열은 체제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에 전복과 내파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성영웅소설의 의의는 바로 이러한 징후적 가능성들의 포착에서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

**주제어** 여성영웅소설, 위반, 융합, 균열, 젠더 규범, 전복

## 1. 문제제기

조선은 유교적 이데올로기, 특히 남녀의 본질적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 내는 젠더 이분법이 완강했던 시대였다. 그러한 사회에서 억압과 차별의 대상이었던 여성이, 남장을 통해 사회에 진출하고 공을 세우는 이야기가 널리 읽혔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문화적 현상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영웅소설의 파격적인 설정, 특히 남장을 통한 젠더 변환 및 성공적 젠더 수행은 그간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sup>1)</sup>

1) 장시광(2001), 정병설(2001), 이지하(2004), 김정녀(2007)에서 그 동안 이루어진 여성영웅소설에 관한 논의들이 체계적으로 검토된 바 있다. 본고에서는 관련된 논의만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장시광,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女化爲男’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 2001, 305~310쪽;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19, 2001, 207~215쪽; 이지하, 『고전소설과 여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전망』, 『국문학연구』11, 국문학회, 2004, 51~78쪽; 김정녀,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의 동향과 전망』, 『여성문학연구』15,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15~66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남장은 그동안 주로 여성의식에 비추어 얼마나 진전되었는가의 여부가 관심사였다. 그에 따라 여성의식의 측면에서 여성영웅소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논의와 그러한 해석에 반대하면서 여성영웅소설이 지나는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는 논의로 나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의들은 결국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장면과 설정들 중 일부를 집중적으로 부각함으로써 이루어져 왔다. 즉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성현실에 대한 비판적 자각이나 자아실현 의지 등에 주목한 논의들은 남장을 통한 사회 진출 및 뛰어난 능력 발휘를 강조한 반면, 그 한계를 지적하는 논의들은 여성영웅의 사회 진출이 남성선망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성영웅이 결말에서 결국 가정으로 복귀한다는 점을 부각해왔다.

최근에는 이러한 이분법적 논의를 넘어서서, 여성영웅소설의 두 가지 측면을 균형잡힌 시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평등과 차이의 페미니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여성영웅소설의 의의와 한계를 지적한 논의<sup>2)</sup>나,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통해 여성영웅의 성취의 진전된 부분과 한계를 모두 다루었던 논의<sup>3)</sup>, 또 여성영웅이 황제와 남편을 비롯한 주변 타자들과의 상호인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 논의<sup>4)</sup>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들에서도 앞서 언급한 ‘저항 대 순응’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온전히 극복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여성영

---

쪽.

- 2)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화사연구』31, 민족문화사학회, 2006, 156~193쪽.
- 3) 이지하, 『주체와 타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여성영웅소설』, 『국문학연구』16, 국문학회, 2007, 31~57쪽.
- 4) 김정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본 여성영웅 홍계월』, 『고소설연구』35, 2013, 106~134쪽.

웅을 가부장제와 젠더 규범에 의도적으로 저항하거나 순응하는 주체로 바라보려는 관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여성영웅의 특정 행위에 주목하면서 그것을 젠더 규범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하거나, 역으로 그것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반된 해석은 작품 내의 각기 다른 지점을 근거로 양립 가능하다. 따라서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성영웅의 의도적 행위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지만 드러나는 어떤 ‘징후’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영웅소설은 영웅소설의 장르 관습에 기반해 탄생했던 통속소설이다. 그렇다면 현대의 연구자들이 보기에도 혁신적인 ‘여성이 남장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통속적인 이야기’로 통용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천착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여성영웅소설을 ‘신기하지만 위협하지 않은 이야기’로 볼 필요가 있다. 다분히 신기하고 젠더 규범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재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소비될 수 있었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영웅소설이 페미니즘적 시각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여성영웅소설에는 여성의식의 진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젠더 규범의 위반이 분명 간취된다. 그러나 그것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면서 통용되었다면, 그것을 안전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반’과 ‘봉합’이라는 이름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신기하지만 위협하지 않은 이야기’란 그 속에 두 가지 상반된 지향이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영웅이 갖는 ‘신기함’은 결국 기존의 젠더 규범과의 거리에서 생겨난다.<sup>5)</sup> 그 거리가 크면 클수록 신기함은 늘어나

5) 류준경은 영웅소설에서 여성영웅이 등장하게 된 계기를 영웅소설 내부의 장르운동과 관련지어 논의했다. 특히 영웅소설의 관습에 기대어 나타난 여성영웅소설의 경우, 여화위남의 설정이 현실적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장르 관습에 여성이 수용되면서 나타난 부산물로 파악했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신기함의 지향’은 이러한 맥

겠지만, 동시에 기존 규범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성도 함께 증가한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신기하면서도 적당히 위험하지 않도록 만드는 ‘봉합’은 쉽지 않다. ‘봉합’이 완전하지 않을 때, 그 속에서 균열과 틈새가 생겨 날 수 있다. 여성영웅소설에서 중요한 지점은 이와 같은 균열과 틈새를 발견해내는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여성영웅소설이 통속소설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보다 ‘봉합’이 대체로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규범에 대한 위반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하고, 그것이 어떻게 사회 규범 ‘내’로 통합되어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를 제시했음을 의미한다.<sup>6)</sup> 즉 여성영웅소설은 위험하지 않은 소설로 수용되고 소비되었다. 따라서 여성영웅소설에서 여성의식의 진전과 같은 진보적 시각을 읽어내기란 쉽지 않다. 그보다는 그 속에서 간헐적으로 드러나는 균열의 지점을 섬세하게 포착해내고,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여성영웅소설에서 간취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파생되는 어떤 징후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

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그러한 지향이 서사에 미친 의도하지 않은 효과로서의 ‘균열’을 강조하고자 했다.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27쪽.

- 6) 이와 같은 과정은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도 일정 부분 관련성이 있다. 가령, <유충렬전>이나 <조용전>에는 천자를 능멸하고 기존 체제를 부정하는 정한담과 이두병이라는 악인이 등장한다. 게다가 이러한 악인들은 국경 ‘밖’에서 침략하는 ‘오랑캐’가 아니라, 대대로 조정에서 영화를 누린 명문거족의 후예이다. 이와 같은 설정은 체제 내부로부터의 위협을 상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상상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악인의 설정이 오히려 소설의 흥미를 가장 크게 유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본래부터 악인’으로 설정되어, 체제를 위협하기 때문에 악인인 것이 아니라, 악인이기 때문에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체제의 정당성은 서사 내에서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통속적이고 안전한 소설로 소비될 수 있었다. 조현우, 『고소설의 악과 악인 형상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 『우리말글』41, 우리말글학회, 2007, 211~215쪽.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옥주호연>, <이학사전>, <정수정전>, <홍계월전><sup>7)</sup>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몇몇 작품들을 함께 거론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옥주호연>을 제외한 나머지 작품들은 선행 연구에서 여성 우위형 소설들로 언급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소설은 신기함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젠더 규범에 대한 위반과 봉합이 잘 드러난다. <옥주호연>은 지금까지 가부장제에 순응한 여성영웅이 등장하는 소설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작품을 젠더 인식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징후적으로 포착되는 문제적 작품으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 2.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위반’과 ‘봉합’

### 1) 천정(天定)과 부모의 부재를 통한 딜레마의 해결

여성영웅소설에서 핵심적 화소인 남장은 그 자체로 젠더 규범의 위반이다. 그렇다면 여성영웅은 왜 남장을 선택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가? 표면적으로 본다면 남장의 이유는 작품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이지만, 그 배경에 가부장제의 ‘위기 상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즉 대체로 여성영웅은 적통 후계자가 없는 집의 무남독녀로 태

---

7) 각 작품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이 작품들을 인용할 경우, 작품명과 쪽수만 밝히도록 하겠다.

<옥주호연> : 김동욱 편, 『영인 고소설판각본전집』2,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73, 249~263쪽.

<이학사전> :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편, 『활자본 고전소설전집』7, 아세아문화사, 1976, 195~255쪽.

<정수정전> : 김동욱 편, 『영인 고소설판각본전집』3,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73, 59~67쪽.

<홍계월전> :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장시광 교감, 『홍계월전』, 한국학술정보, 2011, 93~191쪽.

어나며,<sup>8)</sup> 어린 시절 부모와 헤어지거나 아예 부모가 모두 죽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여성영웅은 자신의 성공을 통해 가문을 지키고 부모의 원수를 갚거나 부모에게 효도하겠다고 결심한다.

<이학사전>에서 이현경은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공명을 누리기 위해 남장하겠다고 선언한다.<sup>9)</sup> 정수정은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남복을 입었다고 임금에게 고백한다.<sup>10)</sup> 이들의 부모(혹은 ‘유사 부모’<sup>11)</sup>)가 남장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영웅은 효도하기 위해 젠더 규범을 위반하는 인물이 된다. 이렇게 되면, 여성영웅들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그들이 남장을 통해 이루려는 목표와 그것을 금지하는 규범이 모두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가치들이기 때문이다.<sup>12)</sup>

이와 같은 유교적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은 낯설지 않다. 가령, <맹자>에는 국법을 지키는 일과 아버지에 대한 효가 충돌하는 딜레마적 상황<sup>13)</sup>이 등장한다. 그러나 여성영웅들이 처한 딜레마는 <맹자>에 등장

8) <이학사전>에서 이현경에게는 남동생이 있지만, 부모가 구물하고 남동생은 너무 어리다는 점에서 가문의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9) “스름이 세상에 처하미 임군을 충성으로 섬기고 아버이를 효도로 섬겨 공명을 일세에 누리고 일흠을 빅세의 전하오미 췌췌하온지라 쇼네 비록 녀즈의 몸이오나 췌은 세상에 용넬흔 남즈를 옷나니 원컨디 녀복을 벗고 남복을 기착하와 부모를 뵈셔 아들의 도를 횡코즈 하느이다”(〈이학사전〉, 197쪽)

10) “신의 나히 십일세의 아비 결강 적쇼의셔 죽소오니 혈혈녀지 의탁할 곳이 업셔 외람흔 췌을 너여 천지를 쇼기고 음양을 변체하여 입신양명하오문 웬슈 진량을 버혀 아비 원혼을 위로할가 하미러니...”(〈정수정전〉, 63쪽)

11) 이현경과 정수정에게 남복 개착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존재는 그들의 유모이다. 이들은 ‘젓어미’라는 점에서 유사 부모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된다.

12) 장시광은 여성영웅이 겪는 갈등의 원인이 유교 이데올로기로부터 비롯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딜레마로 파악하지 않고, 남성을 모방해 남성으로서의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장시광, 앞의 글, 328~329쪽.

13) 도옹이 묻기를, “순임금이 천자가 되고, 고요가 법관이 되었는데, 만약(순임금의 아

하는 상황보다 좀 더 심각하다. <맹자>의 상황은 두 가지 규범 중 어느 것을 ‘먼저’ 따를 것인가의 문제이기에, 더 급한 것 혹은 더 중한 것이 판별되지만 한다면 해결 가능하다.<sup>14)</sup> 이에 반해 여성영웅이 처한 딜레마는 효도하기 위해 부모의 뜻을 정면으로 위반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가부장제에서 권장하는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 가부장제에서 금지하는 젠더 위반을 수행하는 것이다.

서사 내에서 이와 같은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여성영웅소설에 흔히 등장하는 태몽이나 예언 등의 ‘천정론(天定論)’은 남장으로 생겨나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 여성이 남장을 하고 ‘아들 노릇’을 하려는 행동은 규범을 위반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은, 이들이 체제에서 권장하는 가치를 수행하려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행동이 이미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된다.<sup>15)</sup> 여성영웅의 모든 행위가 태어날 때부터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남장과 같은 위반은 더 좋은 결말을 위한 잠깐의 ‘일탈’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옥주호연>에는 이같은 딜레마와 봉합의 과정이 잘 나타난다. 자주·벽주·명주의 세 자매는 공을 세워 부모에게 효도하고자 하지만, 정작 그 효도의 대상인 부모의 강렬한 반대에 직면한다. 부친인 유원경은 부인을

---

버지인) 고수가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하였겠습니까?”(桃應問曰, “舜爲天子, 臯陶爲士, 瞽瞍殺人, 則如之何?” <孟子> ‘盡心’)

14) 주자는 <논어>의 주에서 <맹자>의 이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이 때를 당하여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승(勝)할 것이니, 그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어느 겨를에 따질 수 있겠는가?”(當是時 愛親之心勝 其於直不直 何暇計哉)라며, 아버지를 업고 도망가겠다는 맹자의 주장을 지지한다.

15) <홍계월전>과 <정수정전>에서의 태몽은 여성영웅의 일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학사전>에는 태몽이 등장하지 않지만, 서사 말미에서 두 주인공이 함께 승천하는 것으로 설정되면서 이들의 삶이 ‘하늘이 정한 운명’의 실현이었음이 암시된다.

질책하고, 여도를 따르지 않는 세 자매 중 하나를 죽이겠다고 결심한다. ‘효도하려다가 도리어 불효를 저지르게 되었다’<sup>16)</sup>는 그들의 딜레마는 유교적 가치에 저항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이때 이들은 자신들의 출생이 “하늘의 유의하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남장을 통한 입신양명을 정당화한다.<sup>17)</sup>

<옥주호연>의 세 자매는 출장입상을 소망하면서, 태몽을 통해 주어진 “비록 여자나 가문을 빛내고 부모에게 영양(榮養)하리라”는 예언<sup>18)</sup>을 토대로 남장과 출세를 감행한다. 그들의 소망과 그 실천은 부모에게 영화를 안기고, 어울리는 천정배필을 찾기 위해 예정된 과정이다. 그러나 소망의 실현은 미래의 일이기에 현재의 불효와 충돌한다. 이들은 미래의 더 큰 효도를 위해 현재의 일시적 불효를 감수하기로 결정한다. 이때 그들의 젠더 규범 위반은 ‘하늘이 정해놓은 운명’이라는 점에서 그들 스스로에게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정당성을 얻게 되면서 봉합된다.

여성영웅소설에는 천정론 이외에도 남장으로 인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또 다른 설정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의 부재이다. <정수정전>에서 정수정의 아버지인 정국공, 어머니, 시아버지인 장공은 모두 갑자기

16) “부모의 심혹지은을 감휼 길히 업스를 각골통심호와 천디일월기 축원호옵고 남조 스 업을 숭상호옵더니 디인이 괴로호스 부너지간 천륜을 쓴코져 호시미 쇼녀 등이 소당 감수홀 거시로디 다시 심각건디 입신양명호여 부모를 영양코져하다가 도로혀 부모기 골육잔히호는 누명을 취케호미 천디간 죄인인 고로 이제 마지 못호와 십년을 위한호 옹고 슬하를 썬나 그음업시 가오니 부모는 만슈무강호쇼셔” (<옥주호연>, 251쪽)

17) “만일 우리 형제 중 하나를 죽이시면 인륜이 산란하고 부모의 판인덕이 그린 썬이 될 것이오 또 아등 삼인이 일시의 강제하몬 정녕코 하늘이 유의호시미니 엇지 녹녹히 규방을 직히여 그저 늘오리오 잠간 부모 슬하를 썬나 신명호 님공을 도야 공명을 일운 후 금의환향호여 부모기 뵈오면 쾌홀가 호노라”(<옥주호연>, 251쪽).

18) “네 전싱의 죄 중하므로 금세의 무즈호게 접지호엿더니 이번 디시쥬호 공덕으로 귀녀 세홀 접지호느니 비록 녀지나 가문을 빛니고 부모에게 영양호리라”(<옥주호연>, 250쪽).

세상을 떠난다. 또 <이학사전>에서 부모는 한꺼번에 죽는다. <옥주호연>이나 <홍계월전>에서는 주인공의 부모가 모두 살아있기는 하지만, 서사 내에서 결말까지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sup>19)</sup> 이와 같은 부모의 부재는 분명히 영웅소설의 장르 관습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러나 영웅소설에서 부모의 부재는 서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영웅은 아버지가 중시했던 가치를 그대로 물려받으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애쓰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가 추구하는 가치의 구현은 곧바로 가족의 재회 및 이전보다 더 큰 성공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여성영웅소설에서 부모의 부재나 부모와의 이별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여성영웅은 대체로 부모를 아예 잃거나, 이별하여 서사의 결말까지 만나지 못한다. 또 부모를 재회한다고 해도, 여성영웅의 성공이 부모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웅소설의 관습과는 다르다. 그런 점에서 부모의 부재는 여성영웅이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이다. 부모가 살아 있었을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반대나 남장의 계기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가 부재하는 것으로 설정했던 것이다.

여성영웅의 남장을 비판하고 여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중용하는 유모의 존재는 그런 점에서 시사적이다. <방한립전>이나 <이학사전>에서 부모는 구물하기에, 집안에서는 유모만이 여성영웅의 정체를 알고 있다. 유모는 여성영웅을 키웠다는 점에서 부모와 비슷하지만, 친부모는 아니기에 그녀의 반대는 큰 힘을 갖지 못한다. 여성영웅을 꾸짖고 본래 주어진 젠

19) <홍계월전>에서 홍계월의 부모는 서사 초반부 위기에 처하면서, 계월과 헤어진다. 그러나 서사의 진행 속에서 부모는 곧바로 벽파도에서 재회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들은 벽파도에 '함께' 있지만, 결말에서 홍계월과 만날 때까지 서사 내에서 등장하지 않는다. <옥주호연>의 부모 역시 세 자매가 집을 떠나 금의환향하여 돌아갈 때까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들 역시 서사 내에서 부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더로 돌아갈 것을 종용한다 해도, 유모가 이를 강제할 힘을 가진 것은 아니다.<sup>20)</sup> 이들은 지속적으로 여성영웅에게 가부장제 규범을 환기시키고 그것의 당위성을 강조할 뿐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모의 규범 강조는 여성영웅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독자는 규범이 위반되는 문제적 현실을 목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서사 내에서 젠더 규범이 위반되고 무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젠더 규범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문제적 현실이 곧 회복될 것임을 유모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소리는 결말에서 유모와 달리 강제력을 가진 황제와 같은 인물을 통해 실현된다.

부모의 부재는 여성영웅의 남장이라는 핵심적 흥미소를 더욱 신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는 독자들에게 ‘위반’의 신기함을 더욱 강렬하게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여성영웅소설에는 이러한 신기함이 정도를 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봉합’을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유사부모로서의 유모는 독자에게 신기함을 충분히 주면서도, 젠더 규범이 근본적으로 무력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존재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영웅소설에서의 유모는 이중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먼저 유모는 여성영웅의 성공적 남장을 통해 손쉽게 위반된 젠더 규범을 서사 내적으로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와 더불어 서사의 결말을 통해 그녀의 말대로 여성영웅이 본래의 젠더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젠더 규범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범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각인시키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20) <이화사전>의 유모는 장연을 찾아가 이현경이 여자임을 폭로한다는 점에서 여성영웅소설의 유모 중 가장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이현경이 그녀를 꾸짖기는 하지만 자신을 기른 은혜를 보아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이현경이 유모의 말에 귀기울이거나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2) 완벽한 남장과 기담(奇談)으로의 수용

여성영웅은 남장 이후 사회에 진출하는데, 이때 아무도 그(녀)가 여성 인가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남장이란 단순히 남자 ‘옷’을 입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따라서 남장의 완벽함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남장이란 먼저 ‘외양의 위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옷이나 머리모양 같은 복식뿐만 아니라 목소리, 행동양식 등을 모두 남성적인 것으로 꾸미는 일이 포함된다. 둘째, 입신양명이나 출장입상으로 대표되는 ‘이상적 남성성의 발현’을 의미한다.<sup>21)</sup> 여성영웅은 문무를 겸비한 능력을 토대로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남장의 완벽함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생겨난다.

장학시 리학스를 보미 풍치 더욱 쾌락하야 추파를 나작이 향앗시니 푸른 귀밧터럭은 소세를 아니 향앗시나 즈약흔 티되 반개흔 모란화 동풍에 비스 혼는 듯흔지라 식로이 경탄하야 호탕흔 뜻이 전에서 더하야 오작 바라볼 짜 름이러라(<이학사전>, 200쪽)

책진이 명주의 손을 잡고 쇼왈 금일 형의 용모를 본즉 실노 쇼계의 마음 이 흠모하미 심하미 타일 현달흔 후 형 갖흔 부인을 어더 일심동낙고져 혼노 라 벽귀 답쇼왈 장부 공명을 일운 후 슈녀 엇기를 엇지 근심하리오(<옥주호연>, 252쪽)

위의 인용문은 <이학사전>과 <옥주호연>에 나오는 것이다. 두 글에

21) 정병현은 ‘영웅’이란 “각 개인이 생각하는 이상적 삶의 총화와 같은 모습”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성영웅이 완벽한 ‘영웅’의 모습으로 탄생된다고 할 때, 그 모습이란 ‘이상적 남성성의 발현’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병현, 『여성영웅소설의 서사구조와 변이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학』36, 한국언어문화회, 1996, 390쪽.

서 모두 남성 주인공들은 여성영웅에게 성적으로 매혹되고 있다. 특히 남성 주인공이 매혹된 주요한 이유가 “풍채”와 “용모”와 같은 외모라는 점은 흥미롭다. 즉 그들은 남장한 여성영웅을 명백하게 남성으로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외모를 보고 성적 매혹을 느끼는 것이다. 물론 남성주인공이 남장한 여성영웅에게 끌리도록 설정된 것, 특히 천정에 의한 배필 찾기의 일환으로 설정된 것은 다분히 관습적이다. 여성영웅의 남장, 그리고 그녀의 천정배필과의 숙명적인 만남, 상호간의 끌림, 그리고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것이자 가장 강력한 장애물인 음양변체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서사적 흥미를 배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성영웅을 동성으로 명확하게 인식하면서도 성적 매혹을 느끼는 남성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동성애적 설정이 별다른 문제없이 수용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독자가 남주인공과는 달리 여성영웅의 정체를 미리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이 결국 이성애적 결합을 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자가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영웅소설에서 남장은 또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남주인공이 남장한 여성영웅에게 성적으로 매혹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지 않더라도, 남장한 여성영웅과 남주인공의 관계는 ‘잠재적’ 동성애 관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들은 서사 내에서 지속적으로 ‘함께’ 있으며, 동성의 동료이자 상하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언젠가 맺어져야 할 ‘배필’이라는 점을 알고 있기에, 여성영웅의 남장이 완벽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상적 남성성을 발현하면 할수록 동성애의 문제는 점점 더 강화된다.

여성영웅소설에서 ‘신기함’이란 결국 남장의 완벽함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때, 그 남장이 언제 어떻게 폭로되는가, 그리고 폭로 이후 여성영웅이 어떻게 사회로 복귀하는가의 문제는 서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

라서 남장이 너무 쉽고 빠르게 폭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동시에 남장이 지나치게 완벽하고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 두 사람 사이의 결합이나 이끌림의 문제는 동성애라는 금기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게 된다.<sup>22)</sup> 그런 점에서 신기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수준으로, 혹은 금지 가능한 수준으로 동성애를 생산하는 과정이 필요해진다.<sup>23)</sup>

이 지점에서 여성영웅소설에서 ‘황제’가 갖는 역할과 위상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난다. 앞서 살폈듯 여성영웅소설에서 부모의 부재는 남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조건이었다. 여성영웅은 젠더 규범을 위반했지만, 황제의 인정을 받은 후 사회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sup>24)</sup> 이러한 과

22) <방한립전>은 이와 같은 문제를 끝까지 밀고 간 작품이다. 동성 간 결혼이라는 설정은, 여성영웅의 완벽한 남장이 탄로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상상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을 “조선 시대에 존재했을 것이나 적절히 호명되지 못하고 부재의 영역”으로 남아 있던 동성애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김경미의 지적은 타당하다.(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 사회의 새로운 상상 -<방한립전>』, 『한국고전연구』17, 2008, 201~207쪽.) 그러나 이 작품이 “동성애를 존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가는 의심스럽다. 조선 시대 동성애가 ‘대식(對食)’이나 ‘용양(龍陽)’ 등의 이름으로 불리거나, 그에 대한 소설적 형상화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동성애가 담론 안에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방한립전>에는 젠더 규범 위반을 봉합하려는 노력이 간취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봉합이 성공적인가, 또 그 내부로부터의 균열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하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23)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동성애가 억압되기 위해 생산된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이성애 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금지와 억압의 대상으로서의 동성애가 논리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성애는 논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동성애를 생산하고 동시에 그것을 금지함으로써 유지된다.(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트러블』, 문학동네, 2008, 230~231쪽.) 이는 TV 드라마나 영화에서의 동성애가 일종의 ‘오해에서 비롯된 소동’으로 재현되는 방식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성적으로 매혹되면서도 동성애기에 곤혹스러웠던 대상이 알고 보면 이성이었다는 설정은 동성애를 재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동성애를 금지하고 이성애 규범을 강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24) 김경녀는 여성영웅 흥계월에 대해 논의하면서, 황제와 시부를 비롯한 타자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논의는 ‘주체를 경험한 여성’이 남장이 폭로된 이후에도 영웅성을 유지하며 능동적인 삶을 살았다는 점을 드러내려는 고민에서 비롯

정은 ‘아버지’에게서 분리됨으로써 위반을 수행하다가, 또 다른 ‘아버지’이자 권력의 상징인 황제에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복귀하는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황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성영웅을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무엇인가?

정수정이 스스로 남장했음을 표를 올려 고백하자, 황제는 ‘고금의 희한한 여자’로서 그녀를 받아들인다. <홍계월전>의 황제는 누가 평국을 여자로 보았겠는가를 질문하면서, ‘고금에 없는 일’이라고 언급한다. <이학사전>에서 황제는 ‘인세에 있을 법하지 않은 일’로 간주한다. 이러한 반응은 여성영웅의 남장이 완벽했기에 이들이 여성이란 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고백이다. 동시에 이들은 여성영웅을 처벌하거나 사회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이한 존재’로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수정이 이미 여자임을 밝힌 후, 두 번째로 참전하게 되는 과정은 무척 흥미롭다. 신하들이 정수정을 장수로 삼아 외적에 대항하자고 요청하자, 황제는 “이미 여자인 줄 알진대 어찌 전장에 보내리오”라며 주저한다. 이때 신하들은 정수정을 ‘각별히 하늘이 폐하를 위하여 내신 사람’으로 규정한다.<sup>25)</sup> 여자를 장수로 삼아 전장터에 보내는 일은 젠더 규범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나 이 위반은 국가의 위기 타개라는 또다른

---

된 것으로 보인다.(김정녀(2013), 앞의 글, 128~132쪽.) 그러나 홍계월의 영웅성과 능동성, 즉 ‘주체’로서의 삶을 강조하게 되면, 그와 같은 주체가 체제의 예외적 수용을 통해서만 탄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 홍계월은 뛰어난 자질을 가진 인물이고, 권력의 ‘예외적 용인’을 통해서만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이 경우, 홍계월과 같은 능력을 갖지 못했거나 예외적인 용인을 받지 못한 여성들 혹은 그 밖의 존재들은 주체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 이에 따라 주체가 되지 못하는 개인들의 조건, 그것을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체제의 모순은 은폐되고, 체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유지된다.

25) 계신이 주왕 명수정이 안이면 디적홀 직 업나이다 상왕 전일은 슈정의 녀화위남헌줄 모로고 전장의 보너거니와 이미 녀진줄 알진디 엇지 전장에 보너리오 계신왕 츠인은 각별이 하늘이 폐하를 위하여 너신 스텝이오니 폐하는 넘네마옵쇼셔.<정수정전>, 65쪽)

상황 앞에서 ‘각별히 하늘이 내신 사람’이라는 이유로 무마된다. 그 속에서 전쟁은 젠더 위반을 무마하기 위한 배경으로 등장한다. 그런데 젠더 규범 위반을 무마하기 위해 더 큰 위기상황을 조성하는 일은 양면성을 갖는다. 먼저 위기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성에게 금지되어 있던 영역과 권력을 다시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수정의 참전은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동시에 전쟁과 같은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이 아니고서는 젠더 규범이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젠더 규범의 위반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젠더 규범은 보존되고, 정수정은 예외적인 경우인 ‘각별한 사람’<sup>26)</sup>으로 체제 내에 편입된다.

티죄 쇼왈 짐이 금일 삼경의 벼슬 봉하는 바는 별희라 일후 반다시 그담 묘식되리라 하시니 이는 티죄 총명예지 하시미 그 음양변체호물 이피 아르 시미라 제 신은 상의 유의하시를 씨다지 못호되 자주 등은 황공불안호물 마지 아니호더라(<옥주호연>, 257쪽)

상이 청과의 놀나시며 또한 우어왈 금일 경등의 소회를 드른즉 진실노 기이호 일이로다 짐이 이왕 아름이 있기로 봉작호 썬 작명을 다르게 호미오 오늘 이 거조는 경의 본적을 만조문무로 명빅히 안 연후의 디스를 힘코져 호미니 경등이 비록 지혜원디 호나 엇지 짐을 속이리오(<옥주호연>, 259쪽)

위의 인용문은 <옥주호연>의 황제가 뛰어난 지인지감의 능력을 갖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 작품의 후반부에서 황제가 차지하는 서사적 비중

26) ‘대단히 특별한[各別] 사람’이라는 말 속에는 ‘수용’과 ‘배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어떤 담론의 영역 안에서 인식될 수 없는 존재는 처음부터 그런 속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담론 속에서 사유될 수 없는 존재로 재현된다. ‘각별한 사람’은 유난히 다른 존재로서 체제 안으로 수용되는 동시에, 그 다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수 없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배제된다. 전혜은, 『섹스화된 몸』, 새물결, 2010, 265쪽 참조.

은 매우 크다. 황제는 남장한 세 자매가 사실 여자라는 점을 진작 눈치채고도 이를 문제삼지 않는다. 특히 그는 세 자매에게 여성임을 암시하는 작위를 하사하면서, 이 일이 ‘기담(奇談)’이자 ‘묘사(妙事)’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옥주호연>에서 여성영웅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별다른 고민이나 갈등 없이 여성으로 돌아간다. 세 자매의 정체가 탄로나는 과정은 상당히 정교하게 서사화되어 있다. 황하산 도사의 예언, 황제의 지인지감, 세 자매가 쓴 시를 읽은 남성 주인공들의 전후 사정 파악, 그리고 최종적인 태역지에서의 사건까지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은 작가가 세 자매의 정체 탄로 및 여성으로의 복귀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도록 상당히 공을 들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획하며, 실천하는 인물이 바로 황제이다. 이 소설의 결말에서 모든 상황은 과도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잘 해결된다. 세 자매는 태역지 사건을 통해 남장이 폭로되고 여성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 사건은 황제가 여성영웅들의 정체를 폭로하되, 그것이 체제 내적으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수용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연출한 것이다. 그후 황제와 황태후는 삼형제와의 혼례까지 책임진다. 이 사건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황제에 의해 연출된 일종의 ‘소동’이며, 이를 통해 그들을 체제 내로 수용하기 위한 일종의 면죄부로 기능한다.

황제는 어떻게 이러한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 왜 하필 황제가 그 능력을 갖도록 설정된 것일까? 황제는 기존 질서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가 여성영웅의 성별을 한 눈에 알아보고도 그(녀)를 용납하는 일이야말로, 여성영웅이 초래하는 혼란과 무차별로 인한 공포를 상징적으로 해소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경등이 비록 지혜 원대하나 어찌 짐을 속이리오?”

라는 구절은 왜 황제가 비밀을 일찍부터 눈치채고 여성영웅의 자연스러운 수용을 위한 계획의 입안자로 설정되었는가를 알려준다. 황제는 젠더 이분법에 기초한 가부장제 질서의 상징적 존재이다. 황제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계획하여 음양변체라는 근본적 질서의 위협을 수용 가능한 ‘소동’으로 만들어내고, 이를 다시 ‘행복한 결말’로 만들어내는 관용과 해안의 존재이다.

<옥주호연>의 결말은 ‘행복한 결말’의 전형처럼 보인다. 서사 내 존재 하던 갈등은 모두 해결되고, 모든 인물들은 분에 넘치는 보상을 받게 된다. 이러한 행복한 결말은 <옥주호연>에 비해 더 심각한 갈등이 나타나는 <정수정전>과 같은 소설에서도 마찬가지이다.<sup>27)</sup> 그러나 이와 같은 행복한 결말은 지나치게 완전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문제적이다. 규범의 ‘위반’으로 인한 갈등은 <옥주호연>에서처럼 연출된 ‘소동’이 되거나 <정수정전>에서처럼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통해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영웅소설의 결말에 나타나는 행복은 규범을 ‘위반’하는 존재를 예외적으로 수용하는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위협한 상상으로서의 ‘위반’이 어떤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융합’되고 있는가를 살폈다. 여성영웅의 남장 과정에서 드러나는 딜레마는 천정론과 부모의 부재를 통해 해결된다. 또 남장의 완벽함으로 인한 동성애 문제와 젠더 인식의 혼란은 극히 예외적 존재로의 수용을 통해서, 그리고 관용과 해안의 존재인 황제의 능력으로 해결된다. 또 급작스러운 인물의 태도 변화를 통해 ‘행복한 결말’을 그려낸다

27) <정수정전>에서 정수정과 시어머니 태부인은 서사 끝부분에서 지난 갈등을 모두 잊고 화해한다. 태부인은 정수정이 “대의를 알아 삼가 화복할 것”이라는 며느리들의 간언을 듣고 곧바로 수긍한다. 정수정은 태부인의 화해 편지를 받고 즉시 돌아와 태부인에게 며느리로서의 예의를 갖춘다. 이에 따라 태부인과 정수정은 ‘전사(前事)를 조급도 개의치 않는’ 관계가 되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는 점에서 서사 내 갈등은 봉합된다. 그러나 이러한 봉합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여성영웅소설의 위반과 통합의 과정에서 또다른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이러한 ‘틈새’들을 검토한다.

### 3. 젠더 규범의 ‘균열’과 ‘전복’의 가능성

#### 1) ‘꾸밈’이 초래하는 혼란과 균열

유교적 젠더 이분법은 남녀의 본질적인 ‘차이’를 중시한다. 그리고 이는 남성과 여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고, 능력과 자질에서 차이가 있기에 역할과 지위도 달라야 한다는 ‘차별’의 논리로 이어진다.<sup>28)</sup> 이와 같은 ‘차별’의 논리는 남녀의 ‘차이’를 누구나 확인 가능할 때에만 안정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만약 그 ‘차이’가 것처럼 확연한 것이 아니라면, 즉 누구나 확인 가능할 정도로 뚜렷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또 심지어 그 ‘차이’가 담론적으로 강요될 뿐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것에 기반을 둔 젠더 체계 자체가 무력화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여성영웅소설의 완벽한 남장은 바로 이러한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유교적 젠더 이분법에 대한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

여성영웅소설이 남장의 완벽함을 통해 신기한 이야기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앞서 지적했다. 그와 같은 신기함이란 여성영웅이 남장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주변 인물들의 반응에서 드러난다. 여성영웅이 남장을 벗고 자신은 여자라고 고백하는 순간, 다른 인물들이 보여주는 ‘놀라움’을 떠올려 보자. 이 놀라움은 어디에서 오는가?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알던 그 뛰어난 ‘남성’이 사실은 ‘여자’였다는 것, 또 그녀가 어떻

28) 박혜숙, 앞의 글, 177쪽.

게 그렇게 다른 어떤 남성보다도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는가에 대한 찬탄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놀라움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젠더 인식’에 대한 확신이 무너졌다는 사실에서 온다. 그렇다면 황제를 비롯한 인물들이 여성영웅의 성별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이미 갖고 있던 젠더 정체성에 대한 지식, 즉 남성과 여성은 이러저러한 차이를 갖고 있다는 그 지식에 비추어볼 때, 남장한 여성영웅이 남성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그들의 놀라움은 바로 이러한 성별을 구분할 수 있다는 ‘문화적 추론’에 기반한 지식체계<sup>29)</sup>에 혼란이 왔음을 드러낸다.

‘남장’이 ‘옷’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모’를 꾸미는 일인 동시에 ‘이상적 남성의 자질’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의 문제였음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남장한 여성영웅이 그 외모의 완벽한 남성성과 함께, 큰 공을 세우고 높은 벼슬을 받는 과정은 남성의 이상적 자질들에 대한 수행이자 모방이다.<sup>30)</sup> 이때 다른 이의 무엇을 보고 젠더를 판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젠더의 인식은 외양과 활동을 보면서,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간주되는 ‘본질’인 섹스와 일치한다고 믿는 일이다. 여성영웅이 정체체를 드러낼 때 나타나는 놀라움은 그러한 믿음의 근거가 매우 허약

29) 버틀러는 ‘여자처럼’ 옷을 입은 남자나 ‘남자처럼’ 입을 여자를 보았을 경우, ‘여자처럼’이나 ‘남자처럼’과 같이 언급되는 젠더가 실재를 결여한 환각적인 외양이라고 보는 관점을 비판했다. 버틀러는 이와 같은 지각의 기초를 세우는 ‘젠더 실재’의 의미를 질문하면서, 대상의 젠더에 대한 판단이 일련의 문화적 추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이런 범주들이 의문시될 때 젠더의 실재 또한 의문시되면서 실재를 비실재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불분명해진다. 버틀러는 젠더 구분을 위한 확고한 기준이라고 인식되는 지식이 그렇게 확고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변화되고 수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디스 버틀러, 앞의 책, 66~67쪽.

30) 가령,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MTF 트랜스젠더나 개그 프로그램에서 여장한 캐릭터들에게서 나타나는 ‘과도한 여성성’을 생각해 보자. 그와 같은 ‘과도함’은 실제 인물로서의 여성을 흉내내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에서 여성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자질들의 총합으로서의 이상적 여성상을 모방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함을 알게 해준다. 특히 여성영웅의 남장이 매우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섹스와 젠더가 안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암목적 전제는 크게 위협받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다른 문제들을 야기한다. 여성영웅처럼 가장하지 않은 이들, 가령, 생물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남성이거나 여성인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남자는 군대에 가야 진정한 남자가 된다’는 말을 생각해 보자. 이를 표현하자면 ‘남화위남(男化爲男)’이다. 두 번 반복되는 ‘남자’를 구분하기 위해 앞의 것을 ‘男①’, 뒤의 것을 ‘男②’라고 해보자. 이 둘은 어떻게 같고 다른가? 男②를 ‘진정한 남자’로 만드는 것은 결국 젠더 규범에서 요구하는 이상적 남성성의 자질들이다. 즉 위의 말은 그와 같은 자질들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男①)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그것을 획득한 상태(男②)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때 男②는 자신이 진정한 남자가 되었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그는 젠더 규범에서 생산·유포·강요하는 외양과 남성적 자질들을 모방하고 인용함으로써만 진정한 남자가 된다. 즉 그는 자신의 신체구조와 상관없이<sup>31)</sup> 여성영웅처럼 남장을 통해서만 남성이 된다. 이 경우 우리가 인식하는(혹은 그러하다고 믿는) 젠더란 결국 ‘꾸밈’의 문제가 되고 만다.

31) 이 지점에서 ‘內侍’의 존재를 떠올릴 수 있다. 내시는 금남의 구역인 궁 안을 오갈 수 있는 ‘남성’이다. 특히 조선의 내시가 중국의 환관과는 달리, 성기의 일부만을 도려낸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 내시들은 ‘내시의 아내’류의 야담들에서 보듯, 처첩을 거느릴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사대부들은 내시가 처첩을 거느리는 일을 ‘化育이 宣通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런 점에서 내시는 조선 사회에 존재하는 ‘남성이면서도 남성이 아닌 존재’로서 젠더 이분법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지 못하는 존재이다. 동시에 그에게 불완전하다 해도 성기가 ‘있다’는 점에서, 성기의 ‘있음’이 곧바로 그가 ‘남성임’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만약 성기가 있지만 기능이 불완전하다는 점을 들어 그가 남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기능 장애를 가진 남성 역시 ‘남성’의 범주에서 배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섹스와 젠더는 임의적인 관계로 묶일 뿐, 그 둘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는 사라진다. 이렇게 되면, 남성이거나 여성이기 위해서는 해부학적인 신체 구조와 상관없이 ‘꾸밈’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야만 한다.

잠간 눈드러보니 석일 조복 그온디 엄숙한 남자의 용피 아니라 옥구튼 형 용과 아리싸온 태도는 달이 붓그러울지라 텨상벽되이 살을 먹음은듯하며 가는 허리는 슈양가지 동풍을 이기지 못흐는듯하며 푸른 귀밧찬 횡운이 머므는 듯하니(<이학사전>, 235쪽)

정취 남의를 히탈하고 녀복을 기착힐시 거울 디하여 아미를 다스리미 전 일 원용디장이 변하여 요쥬숙녀 되엿더라(<정수정전>, 64쪽)

삼인이 시러곰 마지못하여 조복을 벗고 녀복을 기착힐시 악연흐를 이기지 못하여 쥬파의 물결이 동흐는지라(<옥주호연>, 259쪽)

위의 인용문들은 남장이 탄로난 여성영웅들이 ‘여장(女裝)’을 통해 여성이 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지금까지 여성영웅소설 연구에서는 ‘남장’을 통한 젠더 전환이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의 ‘남화위녀(男化爲女)’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장한 여성영웅이 성공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겼던 것처럼, 여성영웅이 여장을 하자 지금까지의 남성성은 곧바로 사라진다. 위의 인용문에서 이현경이 여장을 하자 “엄숙한 남자의 용모”는 사라지고 “옥 같은 형용”의 절세미녀로 변신한다. 정수정 역시 여복으로 개착하자마자 전장을 호령하던 장수의 모습 대신 “요쥬숙녀”가 된다. <옥주호연>의 세 자매 역시 여복으로 갈아입자 남성들에게 성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설정은 젠더 규범을 위반했던 여성이 자신의 본질을 되찾는

과정을 그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영웅들이 ‘남장’ 과정에서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성공적으로 남성 젠더를 수행했다는 점, 또 남장하기 이전 여성적인 일들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존재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이들은 의복의 개착, 즉 ‘꾸밈’을 통해서 남성으로 그리고 다시 여성으로 쉽게 젠더를 넘나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장을 통해 여성영웅들이 신속하고도 완벽하게 여성성을 획득하는 일은 역설적으로 ‘꾸밈’이 가진 위험성을 반증한다. 여성영웅은 남장하고 있었을 때 완벽한 이상적 남성으로 인식되다가 여장 이후 신속히 이상적 여성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서술은 융합을 위한 것이지만, 그 의도와 무관하게 ‘꾸밈’을 통해 젠더가 쉽게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렇게 될 때, 젠더는 명사로서의 ‘실체’가 아니라 동사로서의 꾸미는 행위, 즉 젠더의 ‘수행’ 그 자체가 된다. 지금까지 ‘女化爲男’과 ‘男化爲女’에서 주목되었던 것은 명사적 성격을 갖는 젠더로서의 ‘男’과 ‘女’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젠더를 수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化爲’이다. 즉 ‘꾸밈’만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젠더로 ‘변하여 될 수 있다’는 그 가변적 성격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sup>32)</sup>

‘꾸밈’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어떤 대상에게 성적 욕망을 느낄 때,

32)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젠더는 시간 안에서 점차적으로 구성된 정체성, 즉 행동의 양식화된 반복을 통해 도입된 정체성이다. ‘행동의 양식화된 반복’이라는 젠더에 대한 정식화는 ‘행동’, ‘시간성’, 그리고 ‘양식’이라는 특성을 포함한다. 이 정식화는 ‘젠더’ 정체성을 실체로 보는 모델에서 떼어내, 시간 안에서 사회적 구성 과정으로 이해하는 모델로 이동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애령, 『여자 되기에서 ‘젠더 하기’로: 버틀러의 보부아르 읽기』, 『젠더 하기와 타자의 형상화』, 이화인문과학원 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1, 39쪽.) 여성영웅이 서사적 흐름 속에서 ‘여성’에서, ‘영웅’으로, 그리고 다시 ‘여성(인 체로)영웅’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그런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는 외양의 변화(化)를 통해 점차적으로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는[爲] 과정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 욕망이 강제된 이성애 규범의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성애의 공포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영웅의 꾸밈이 완벽한 것으로 설정되고, 하늘이 미리 정한 배필이 그(녀)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것은 서사적 흥미를 배가한다. 또 여성영웅소설의 남녀 주인공들의 동행이 잠재적인 동성애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은 매우 위험한 균열을 초래한다. 강제적 이성애란 누군가에게 욕망을 느낀다면, 그 대상은 이성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규범이다. 그러나 만약 그 대상이 이성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되는가? 앞서 살핀 것처럼, 이성인가의 판단 기준이 고작해야 ‘꾸밈’이 전부라면 동성애가 야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완벽한 ‘꾸밈’을 통해 섹스(이자 젠더)가 아무런 의심없이 판별(사실은 오인)될 때, 동성애의 공포가 확산된다. <옥주호연>의 ‘형 같은 아내’라는 표현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이 말은 남성주인공이 남성한 여성영웅을 명백하게 남성으로 인식하면서도 그들의 ‘용모’를 보고 성적으로 매혹되어 했던 표현이다. 이러한 설정이 천정배필 사이의 결연을 위한 서사적 흥미소로 도입되었다 해도, 그 속에 자리잡고 있는 위험한 상상은 가부장제를 지탱하는 젠더 규범에 일정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형 같은 아내’라는 말은 젠더 이분법이 규정하는 ‘이성’에 대해서만 성적 매혹을 느껴야만 한다는 강제가 그리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때 <옥주호연>의 황제가 주목된다. <옥주호연>은 꾸밈으로 인한 젠더 인식의 혼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제기되는 공포를 잘 드러낸 문체적 작품이다. 앞서 살폈듯 지인지감의 능력을 가진 황제는 젠더 구별과 여성영웅의 체제 내 복귀를 책임지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때 황제는 서사 전체에서 꾸밈의 완벽함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오롯

이 혼자 책임지는 인물이다. 2장에서 인용한 “경 등이 지혜 원대하나 어찌 짐을 속이리오?”라는 황제의 말에는 꾸밈에 대한 서사 내 유일한 판별자로서의 위상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그와 같은 판별이 가능해야만 한다는 공포도 동시에 존재한다. 그런 점에서 <옥주호연>의 황제는 마치 서구 희곡에서 모든 갈등을 급작스럽지만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존재로서의 ‘신(deus ex machina)’과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sup>33)</sup>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초월적 능력이야말로 완벽한 젠더 인식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의 다른 표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앞서 언급한 ‘천정’의 문제를 새삼스럽게 주목하게 된다. 여성영웅소설에서의 천정이 젠더 규범의 위반을 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태몽이나 도사의 예언을 통해 제시되는 ‘천정’은 ‘읽’의 문제와 연관된다. 그와 같은 ‘읽’은 현재 어떤 사태가 발생하고 그것이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해도, 결국에는 하늘이 미리 정해놓은 대로 잘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천정론의 강조 뒤에는 현실의 사태들 너머에 존재하는 확실한 그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공포가 자리잡고 있다. 여성영웅소설에서 천정론은 규범을 위반하는 여성영웅을 그 규범에서 요구하는 ‘제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여성영웅은 가부장제적 젠더 규범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존재이고, 심지어 그들의 젠더 전환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존재이다. 이러한 문제적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그들의 실체를 알고 있으며,

33) 이지하는 <옥주호연>에서 작품 초반부에는 여성주인공이 강한 자의식을 가진 존재들로서 과감히 남성적 질서에 도전하지만, 후반부에 가면 현실 타협의 모습으로 변질되면서 안이한 결론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언급했다.(이지하, 『<옥주호연>의 특징과 소설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43, 한국고전문학회, 2013, 246쪽.) 본고에서는 <옥주호연>이 드러내는 그러한 ‘타협’과 ‘안이함’이야말로 일종의 ‘융합’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 속에서 일정한 균열이 간취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다.

이 모든 상황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하늘이 예비한 잠깐의 일탈일 뿐이라고 위안해주는 것이 바로 천정론인 셈이다.

<방한림전>에서 나타나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간극’<sup>34)</sup>은 이러한 공포감의 다른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작품은 꾸밈이 너무나 완벽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상상을 끝까지 밀어붙인 작품이다. 그 결과 동성 간의 결혼이라는 획기적 ‘위반’이 나타난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수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방한림의 남성성과 영혜빙의 여성성을 강조하고<sup>35)</sup>, 일종의 ‘처벌’로 설정된 초월계의 개입을 통해 낙성의 가문 계승이라는 가부장제적 논리로 전환한다. 그러나 이러한 봉합은 자연스럽지 못한 구성을 수반한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젠더 위반이라는 ‘신기함’이 과도하게 전개됨으로써, 그것을 자연스럽게 봉합할 만한 서사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서사 후반 드러나는 ‘우울과 냉소’<sup>36)</sup>는 젠더 인식 실패가 초래할 동성에 공포에 대한 또 다른 징후라고 할 수 있다.

34) 김하라는 <방한림전>의 전·후반부에 ‘간극’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논자는 전반부에서 방한림과 영혜빙이 지기적 관계의 모습으로 그려지다가 후반부에는 방한림이 가부장적 인물로 변모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는 후반부에 영웅소설의 통속적 모티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하라, 『<방한림전>에 나타난 지기 관계 변모의 의미』, 『관악어문연구』2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2, 240~243쪽.

35) 이러한 서술은 여성 동성에 관계에 대해 남성 역할을 하는 부치(butch)와 여성 역할을 하는 팸(femme)으로 나누는 것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여성 동성에 관계를 이처럼 남녀의 역할로 나누어 인식하는 것 역시 동성애를 이성애적 인식을 안에서 이해함으로써 동성애를 수용하는 동시에 배제하는 것이다.

36) 김경미는 <방한림전> 후반부에서 방한림과 영혜빙에게 나타나는 우울하고 냉소적인 시선에 주목했다. 논자에 따르면, 동성결혼이라는 설정을 통해 젠더 체계를 흔드는 새로운 상상을 보여주었으면서도 그것이 당대 사회에서 허용되기 어렵다는 인식으로 인해 이러한 우울과 냉소가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김경미의 이와 같은 지적에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도, <방한림전>의 ‘우울과 냉소’를 ‘균열’의 양상으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경미, 앞의 글, 206쪽.

## 2) 법의 충돌과 전복의 가능성

여성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영웅의 남장과 이를 통한 성취는, 조선 시대 억압받던 여성들의 현실 비판적 의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즉 여성영웅은 “기존의 제도나 의식에 대한 저항의 수단으로 영웅을 선택하였다”<sup>37)</sup>는 것이다. 여성이 자신을 억압하는 가부장제에 대해 저항의 수단으로 남장을 선택했다는 논리는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리로는 남장을 통해서 뛰어난 성취를 보이고도 다시 가정으로 복귀한다든지, 체제의 논리를 근본적으로 전복하지 못하고 그 논리를 수용하는 모습을 충분히 설명해내기 어렵다.

그렇다면 여성영웅이 정말 가부장제적 논리에 저항했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생긴다. 앞서 살폈던 것처럼 여성영웅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권장되는 가치에 순종한다. 그러나 여성영웅의 순종이 곧바로 남성 선망으로 이해되거나 여성영웅소설의 여성주의적 해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여성영웅은 유교적 가치에 순응하고 있지만, 바로 그 이유로 유교적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는 딜레마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항 대 순응’이라는 이분법적 해석을 넘어서서 여성영웅의 행위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홍길동전>을 떠올리게 된다. 홍길동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저항’이 어떤 한계를 드러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홍길동은 서얼이기에 가부장제의 모순을 체화하는 존재이다. 그런 점에서 홍길동은 마치 가부장제 ‘바깥’에서, 즉 그를 억압하는 권력과 체제로부터 벗어나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홍길동은 을도국을 정벌한 이후, 다시 조선과 유사

37) 정병현, 앞의 글, 396쪽.

한 체제를 건설함으로써 또 다른 억압자가 된다.<sup>38)</sup> 이와 같은 모습은 규범과 권력의 ‘밖’에 존재하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주체란 환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sup>39)</sup>

이와 달리 여성영웅은 규범에 순종함으로써, 그 체제 ‘안’에서 규범과 법의 불안정성,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존재이다. 여성영웅은 젠더 규범에서 생산·유포·강요하는 남성의 이상적 자질을 모방하고 인용한다. 동시에 여성영웅은 법을 준수함으로써 문제를 야기한다. 그렇게 본다면,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나는 전복의 가능성은 여성영웅의 의도적 행위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여성영웅의 법 준수, 그리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딜레마는 젠더 이분법의 규범 ‘안’에 내포된 충돌과 모순의 지점을 전경화한다.<sup>40)</sup>

장휘 디로 디즐왈 닉 비록 용렬흐는 그디의 가뵤라 쇼쇼협의로써 군법을  
빙긋흐고 가부를 곤욕흐니 엇지 녀즈의 도리리오 흐거늘 원슈 츠언을 듯고

38) 김경미, 『타자의 서사, 타자화의 서사, <홍길동전>』, 『고소설연구』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185~212쪽.

39) 푸코는 권력이 있는 곳에 저항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저항이 권력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권력 관계의 또 다른 축임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권력과 관련하여 ‘단 하나의’ 위대한 거부의 장소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푸코의 언급은 홍길동의 저항과 ‘또 다른 조선’의 건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 - 삶의 의지』, 나남출판, 1990, 109~110쪽.

40) 버틀러는 ‘저항’이라는 용어 속에는 권력의 외재성, 즉 권력에 대항하는 입장을 권력에 물들지 않은 순수함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버틀러는 ‘전복’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버틀러에게 전복은 반드시 주체의 의도적 행위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버틀러는 의도나 의지로 환원되지 않는, 주체의 행위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결과와 무관한 권력 그 자체의 내적 모순을 통해 전복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보았다. 주디스 버틀러, 김윤상 역,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인간사랑, 2003, 46~47쪽.

더욱 황복 맞고져 하여 짐짓 꾸지져 왈 그딤 스택을 모르는도다 국가 중임을  
 맞트미 곤이외는 너 장중의 잇슬 썩더러 그딤 이의 범법호엿스니 엇지 부부  
 지의를 싱각하여 군법을 착난케 하리오(<정수정전>, 66쪽)

이제 영춘이 이의 누의 올락 슴부인이 올락감을 보고 안연이 난간 의지혀  
 안저 경치를 구경하며 조곰도 요동치 아니 하거늘 당휘 이를 보고 불승분노  
 하여 도로 침실의 도리와 용복을 갖춘 후 외현의 나와 진시회를 명하여 영춘  
 을 잡아오라 하니 진시회 군사로 하여곰 영춘을 잡아 쏠니는지라 당휘 디질  
 왈 향즈의 너를 죽일 거시로되 너 십분용서호엿거늘 네 종시 조곰도 괴동이  
 업스니 엇지 통찬치 아니리오 이제 네 머리를 버혀 간악교완한 비즈등을 증  
 계하리라(<정수정전>, 65쪽)

위의 두 인용문은 <정수정전>에 등장하는 것으로, 각각 정수정이 남편  
 장연과 첩 영춘을 처벌하는 장면이다. 장연은 자신이 정수정의 남편임을  
 주장하면서 ‘군법을 빙자해’ 남편을 핍박하는 일은 ‘여자의 도리’가 아니라  
 고 주장한다. 이는 가법에 기초해 볼 때, 아내인 정수정이 남편인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일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일이다. 반면 정수정은  
 자신이 ‘곤외(關外)’의 일을 모두 황제로부터 위임 받은 상관임을 강조하  
 면서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 것임을 강조한다. 동시에 그 법의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장연이 ‘범법자’라고 주장한다. 정수정은 법에 저항하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그녀는 가부장제와 대결하기보다는 그것을 지탱하는 법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정수정의 행위는 군법과 가법이 충돌하는 딜  
 레마적 상황을 만들어낸다. 정수정과 장연이 각각 자신의 정당성을 ‘법’에  
 기초해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딜  
 레마가 두 사람 모두 법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누가 승리하는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법·들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두 사람이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내세우는 법인 군법과 가법은 모두 유교적 사회를 지탱하는 규범이다. 문제는 대체로 서로 충돌하지 않는 이 두 규범이 정수정과 장연의 관계 속에서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충돌은 ‘법’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법이 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연화’되어야 한다. 즉 그것이 어떤 기원을 갖고 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는가, 왜 그 법에 따라야 하는가를 잊고 당연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장면에서 두 법은 서로 다른 개인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전유하면서 충돌한다. 이렇게 된다면, 법은 탈자연화되고, 입장에 따라 전유 가능한 존재로 전락한다. 두 법의 충돌은 그 법들이 기초를 이루는 가부장제의 모순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체제를 유지하는 논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내파와 전복의 가능성이 생겨난다.

두 번째 인용문에 등장하는 영춘의 처벌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매우 흥미롭다. 여성영웅들은 가정으로 복귀한 이후 남편의 총애를 받는 애첩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한다. 이때 여성영웅들은 애첩을 처벌하고, 이로 인해 남편 및 시어머니와 갈등을 빚는다. <정수정전>, <이학사전>, <홍계월전> 등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러한 사건은 애첩에 대해 ‘같은 여성’으로서 연대감을 지니지 못한 여성영웅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sup>41)</sup> 그러나 이 사건에서 핵심은 정수정이 영춘을 ‘같은 여

41) 이지하는 정수정의 행위에 대해 ‘여성 일반’에 대한 연대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여성의 불합리한 상황을 경험하고 이에 불만을 가졌으면서도, 여성적 현실 일반에 대한 자각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여성영웅이 “개인적 차원의 주체화”에는 이르렀지만, “여성적 인식에 기반한 여성으로서의 주체화”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보았다. 이지하, 『주체와 타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여성영웅소설』, 『국문학연구』16, 국문학회, 2007, 43~53쪽.

성'으로 보았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이 지점에서 새삼스럽게 여성영웅이 과연 '여성'이라는 자신의 젠더를 부정하고 '남성' 되기를 소망했는가를 되돌아보게 된다. 가령, <옥주호 연>의 세 자매는 “하늘이 어찌 우리를 여자로 내었는가”라고 한탄한다. 이러한 한탄은 조금씩 표현이 다르지만, 여러 작품에 등장한다. 이들의 한탄과 그 후 이어지는 남장은 '남성 되기'에 대한 선망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남성'이 되고자 하는가? 그들은 남자-하인, 남자-역관, 남자-노인, 남자-부자가 되고자 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되고자 하는 것은 보편적 주체로서의 '남성'이 아니라, 남성'들' 중 특정한 조건을 가진 남성이다.

이는 역으로 한탄하는 여성영웅들이 보편적 '여성'이 아니라 여성'들' 중 특정한 조건을 가진 여성임을 말해준다. 가령, 정수정이 아니라 그녀의 유모가 출장입상을 꿈꾸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그녀의 소망이 좌절된다면, 그 이유가 단순히 '여성'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유모는 나이, 학식, 계급, 자질 등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출장입상이 어렵다. 정수정이나 홍계월 등 여성영웅이 남장을 통해 출장입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미 가진 것'으로서의 계급적 기반, 학식, 연령 등의 다른 조건들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명문 가문의 후손이 아니었거나, 그들의 유모처럼 나이가 많았거나,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애초에 그러한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여성은 언제나 다양한 조건들을 가진 여성'들'이다. 그런 점에서 보편적이고 단일한 여성을 상정하면, 정수정이나 유모와 같이 구체적 여성이 구성되는 다양한 조건들을 외면하게 되고, 이는 그 여성들에 적용되는 권력의 다층적 작용을 간취할 수 없게 되고 만다. 그런 점에서 정수정과 같은 계급적 기반과 학식, 능력을 가진 여성이 자신과 전혀 다른 조건들을 가

진 영춘에 대해 ‘같은 여성’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다. 동시에 여성영웅이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 원망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면, 역으로 그녀가 소망하는 대상이 다양한 조건들의 복합이자 교차점으로서의 구체적 남성임을 잊고, 보편적이고 단일한 ‘남성’으로 단일화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단일화는 결국 여성영웅을 또다시 젠더 이분법이라는 굴레 안으로 밀어넣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정수정의 용복 착용 및 영춘 처벌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가 어떤 법을 따르는가, 그리고 그 법의 준수가 어떤 파장을 불러오는가의 문제이다. 정수정은 이 장면에서 모욕당한 그 자리가 아니라 침실로 돌아와 곤이 공복(公服)인 용복으로 갈아입고서 영춘을 처벌한다. 공복이 남성의 복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수정은 다시 남장을 감행하고 있는 셈이다. 여성영웅의 남장은 기본적으로 감추기 위한 꾸밈이다. 그러나 정수정의 용복 착용은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정수정은 자신이 제후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처벌이 가법이 아니라 국법을 기준으로 한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 공복을 착용한다.

정수정이 영춘을 처벌하면서 근거로 삼는 법은 상하 분별을 위한 예법으로, 유교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정수정의 “간악교완(奸惡驕頑)한 비자(婢子)를 징계하리라”는 말은 자신의 행위가 정실부인으로서 첩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제후에게 예를 다하지 않은 천민을 징계한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러나 정수정의 행위는 장연과 태부인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그들은 ‘가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수정의 행위를 비난한다. 앞서 장연과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유교적 사회를 지탱하는 두 법이 충돌한다. 그렇다면 장연과 태부인, 그리고 정수정은 왜 갈등을 일으켰는가?

정수정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는 명문

가문의 후예이며,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장수이자 식읍을 받은 제후이다. 따라서 정수정은 최상층의 계급적 기반을 가진 인물이다. 동시에 정수정은 장연의 정실부인이자 집안의 며느리고, 여성이다. 정수정이 예법을 동원해 영춘을 처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장수·제후·계급에 기반을 두고 구성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신을 무시하는 영춘을 그대로 둘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장연과 태부인은 정수정을 정실부인·며느리·여성으로 규정한다. 그랬기에 그들은 ‘그녀’의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 지점에서 여성영웅의 순종이 왜 문제적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 여성영웅은 서사의 흐름 속에서 ‘여성’이었다가, 남장 후 ‘영웅’으로 살아간다. 남장이 폭로된 이후에는 ‘여성(인 채로) 영웅’인 삶을 산다. 그런데 이 각각의 단계에서 여성영웅은 한번도 안정적으로 가부장제의 젠더 이분법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성영웅은 ‘여성’으로서의 삶을 거부했고, 음양을 변체한 ‘영웅’이었으며, ‘영웅’이었음을 주장하는 ‘여성(인 채로) 영웅’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성영웅은 끊임없이 법을 인용하고 그것에 따르겠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여성영웅은 가부장제와 권력에 순응함으로써 그 구조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 여성영웅은 가부장제에서 권장하는 법을 인용한다. 그러나 그러한 인용과 법의 준수역설적으로 미묘한 충돌과 딜레마를 만들어낸다. 이는 여성영웅이 예외적인 존재로서 체제 내에 수용되었을 때 배제되고 억압되었던 젠더 규범의 모순을 드러낸다. 결국 여성영웅의 법 준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법의 충돌은, 가부장제의 젠더 규범에 포함된 모순과 불안정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전복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성영웅소설이 갖는 균열과 그 의의는 이처럼 체제의 ‘안’으로부터 그 모순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4. 결론

이 글은 여성영웅소설에 대해 지속되어왔던 ‘저항 대 순응’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서 보고자 시도되었다. 여성영웅소설에는 여성의식의 진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부장제와 그것을 지탱하는 젠더 규범에 저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동시에 그에 순종하거나 심지어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볼 수 있는 부분이 공존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이한 해석이 가능한 지점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가 본고의 출발점이었다.

여성영웅소설에는 젠더 이분법을 위반하는 설정과 사건이 등장한다. 남장으로 대표되는 여성영웅의 젠더 변환과 성공적인 젠더 수행은 그러한 ‘위반’을 형상화한다. 그러나 여성영웅소설에는 이들을 안정적인 젠더 이분법 체계 내로 포함시키려는 노력도 드러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향을 ‘융합’이라는 개념을 통해 살폈다. <옥주호연>에서 황제의 뛰어난 지인지감 능력은 그러한 융합의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젠더 규범의 위반에 대한 융합이 늘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그에 따라 여성영웅소설에는 젠더 이분법에 대한 균열과 불안이 드리워져 있다. ‘꾸밈’의 완벽함으로 인한 젠더와 섹스의 인식 실패, 그리고 그로 인한 동성애의 불안, 법들의 충돌로 인한 권력의 탈자연화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여성영웅소설이 갖는 의의는 진전된 여성의식의 표현이거나 남성 선망이 포함된 가부장제로의 회귀가 아니다. 여성영웅소설은 젠더 이분법을 위반하는 존재를 그려내고, 그들을 다시 예외적 존재의 성취와 천정으로 예비된 결연의 서사로 이해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 흥미로운 이야기로 소비되었다. 여성영웅소설이 통속적 대중소설로서 수용되었던 까닭은 이러한 과정이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부장제 내에 존재하는 규범들 사이의 불안정성과 균열이 감지된다. 여성영웅은 완벽한 ‘꾸밈’으로서의 남장과 여장을 통해 성공적인 젠더 변환을 수행하는 인물이다. 물론 이와 같은 과정은 서사에서 여성영웅이 본래의 섹스를 되찾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여성영웅이 여성의 일에 큰 관심이 없는 ‘여성’이었고, 남장을 통해 이상적 남성인 ‘영웅’이 되었다가, 다시 여장을 통해 ‘여성인 채로 영웅’이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서사의 표면에서 성공적인 남장이 곧바로 성공적인 여장으로 ‘융합’된다고 해도, 꾸밈을 통한 신속하고도 완전한 젠더 변환은 젠더의 실체를 의심하게 만든다.

또한 한번도 젠더 규범 내에 안정적으로 포함되지 못했던 여성영웅이 지속적으로 법을 인용하고 준수하겠다고 다짐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법이 탈자연화된다. 일관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법은 이제 그 내부로부터의 모순을 드러내게 된다. 그리고 이는 다시 가부장제를 유지하는 젠더 이분법의 ‘균열’을 감지하도록 해 준다. 이러한 균열은 체제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기에 전복과 내파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성영웅소설의 의의는 바로 이러한 징후적 가능성들의 포착에서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 <옥주호연>, 김동욱 편, 『영인 고소설관각본전집』2,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73, 249~263쪽.
- <이학사전>, 동국대 한국학연구소 편, 『활자본 고전소설전집』7, 아세아문화사, 1976, 195~255쪽.
- <정수정전>, 김동욱 편, 『영인 고소설관각본전집』3,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973, 59~67쪽.
- <홍계월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장시광 교감, 『홍계월전』, 한국학술정보, 2011, 93~191쪽.
-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 사회의 새로운 상상-〈방한림전〉』, 『한국고전연구』17, 2008, 189~216쪽.
- \_\_\_\_\_, 『타자의 서사, 타자화의 서사, <홍길동전〉』, 『고소설연구』30, 한국고소설학회, 2010, 185~212쪽.
- 김애령, 『‘여자 되기’에서 ‘젠더 하기’로 : 버틀러의 보부아르 읽기』, 『젠더 하기와 타자의 형상화』, 이화인문과학원 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1, 39쪽.
- 김정녀,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의 동향과 전망』, 『여성문학연구』15,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15~66쪽.
- \_\_\_\_\_,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본 여성영웅 홍계월』, 『고소설연구』35, 2013, 106~134쪽.
- 김하라, 『〈방한림전〉에 나타난 지기 관계 변모의 의미』, 『관악어문연구』2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2, 225~245쪽.
-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5~36쪽.
-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31, 민족문학사학회, 2006, 156~193쪽.
- 이지하, 『고전소설과 여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전망』, 『국문학연구』11, 국문학회, 2004, 51~78쪽.
- \_\_\_\_\_, 『주체와 타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여성영웅소설』, 『국문학연구』16, 국문학회, 2007, 31~57쪽.

- 이지하, 「<옥주호연>의 특징과 소설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43, 한국고전문학회, 2013, 223~251쪽.
- 장시광,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女化爲男’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 2001, 301~338쪽.
- 전혜은, 『섹스화된 몸』, 새물결, 2010, 1~388쪽.
-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19, 2001, 207~235쪽.
- 정병현, 「여성영웅소설의 서사구조와 변이양상 연구」, 『한국언어문학』36, 한국언어문학회, 1996, 389~416쪽.
- 조현우, 「고소설의 악과 악인 형상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 『우리말글』41, 우리말글학회, 2007, 191~216쪽.
- 
- 미셸 푸코,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 - 얇은 의지』, 나남출판, 1990, 1~176쪽.
- 사라 살리, 김정경 역, 『주디스 버틀러의 철학과 우울』, 앨피, 2007, 1~302쪽.
- 주디스 버틀러, 김운상 역,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인간사랑, 2003, 1~518쪽.
- \_\_\_\_\_, 조현준 역, 『젠더트러블』, 문학동네, 2008, 1~375쪽.

ABSTRACT

A Study on the Violations, Sutures and Cracks in the Heroine Novels

Cho, Hyun-woo

This paper tries to overcome the dichotomy between resistance and obedience those were the key words for describing the Heroine Novels. From the feministic perspective, we can find the things that represent resistance to the patriarchy and the binary gender system in the heroine novels. On the other hand, we can also find the things encouraging obedience instead of criticism to the laws of patriarchy even in the same novels. In this paper, those things were designated as the terms of 'violation' and 'suture'. The 'crack' was designated as the term to mean anxiety and fear inherent in patriarchy.

The perfect disguise of heroine was able to perform social roles as hero, while she has to be returned to her own sex. But it is to be reminded that the heroine can be the female by the female costume and even woman's disguise. In that sense, the heroine performed a successful trans-gendering. Concerned with the changes of heroine, there is a series of step-by-step processes. The heroine was a female who was not interested in woman's work, successfully disguised as a hero, and still remember for once she was a hero. Those changes and disguises mean the gendered body is constructed through a stylized repetition of acts and reveal that there is no natural and stable gender identity. The crack of gender identity can function a subversion of the binary gender system, because it is inherent in the patriarchal system. Finally, the heroine novels show the cracks in the patriarchy, which is the most important significance of those novels in the novel history.

**Key Words**

Heroine Novels, Violations, Sutures, Cracks, Gender Dichotomy, Subversion

논문투고일 : 2014. 10. 21

심사완료일 : 2014. 11. 30

게재확정일 : 2014. 12. 3